

통신서비스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내달 15일 경매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RA 이민영
02. 6098-6656
my.lee@meritz.co.kr

과기정통부, 3일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3일 과기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를 발표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논란이 되었던 3.5GHz 주파수 대역 총량제한은 균등분배에 초점을 맞춰 100MHz로 결정.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통신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6월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

주파수 경매 경쟁 완화 장치 마련, '승자의 저주' 제한적

과기정통부가 3.5GHz 주파수 대역 총량제한을 100MHz로 결정함에 따라 경매 시작가와 낙찰가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 3.5GHz 주파수 대역폭의 입찰 경우의 수는 100:90:90MHz 혹은 100:100:80MHz이며, 라운드 당 입찰증분은 최대 1%,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0.3%에서 0.75% 사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은 제한적. 가입자 규모 대비 적은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 받게 되는 SK텔레콤의 경우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시 총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시사점

5G 주파수 경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만큼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회복 전망. 통신서비스의 경우 3일 KT 실적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IFRS 15 도입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나,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를 앞두고 있어 투자 심리의 완전 회복으로 보긴 어려움. 반면, 통신장비주는 과기정통부가 이번 5G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스몰셀 및 중계기를 포함시켰고,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파수 경매 시행 전후로 긍정적인 증가 흐름 예상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이민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